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91期(2026.05.22.) WWW.MINGHUI.ORG

한글판 1055호 minghui.or.kr



▲ 5월 13일, 미국 광역 뉴욕 지역의 일부 파룬궁수련자 약 2천 명이 뉴욕 맨해튼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해 제27회 ‘5·13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날’을 축하하고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대사(大師)의 탄신일을 축하했다.

주요 내용

【중 국】 깨달은 동료들 “진정한 파룬궁은 이런 것이었구나!”

【해 외】 70세, 생명이 더욱 안정되는 출발점

【수 련】 어디에 살든 모두 여관

【평 론】 산시성이여 산시성이여, 근본을 잊지 마라

【문 화】 시대를 관통하는 사법 남용의 궤적: 천년을 이어온 위험한 굴레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70세, 생명이 더욱 안정되는 출발점	11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4
깨달은 동료들 “진정한 파룬궁은 이런 것이었구나!”	16
거리·버스·공항 터미널, 여든 노인의 활기찬 삶	24

■ 수련교류

어디에 살든 모두 여관	29
중국 수련자들께, ‘불법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길	32
진정한 대법제자가 되다	36
억울한 일을 겪은 후 안으로 찾고 자신을 수련하다	43
발정념의 강대한 위력을 목격하다	48
바르지 못한 생각을 닦아내는 것을 중시하다	51
사람의 관념을 바꾼 것에 대한 약간의 체득	53

■ 시사평론

산시성이여 산시성이여, 근본을 잊지 마라	56
------------------------------	----

■ 문화예술

시대를 관통하는 사법 남용의 궤적: 천년을 이어온 위험한 굴레 ...	62
--	----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5월 13일 수요일, 미국 광역 뉴욕 지역의 일부 파룬궁수련자 약 2천 명이 뉴욕 맨해튼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개최해 제27회 ‘5·13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날’을 축하하고 파룬궁 창시인 리홍쯔(李洪志) 대사(大師)의 탄신일을 축하했다. 파룬궁 수련자들의 방대한 퍼레이드 대열은 맨해튼 미드타운 42번가를 가로지르며 수 마일에 걸쳐 이어졌다. 천국악단, 대형 현수막과 수레, 공법 시연, 선녀 꽃차, 용춤과 사자춤, 깃발과 꽃우산, 요고(腰鼓)와 큰북 등 각 대열이 잇따라 나타났고, 각 민족 수련자들이 선보인 다양한 언어의 현수막 대열과 교차하며 끝없이 이어졌다. 전체 퍼레이드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후에야 모두 지나갔으며, 화려하고 다채로운 퍼레이드 대열은 세계의 중심인 뉴욕 거리에서 당일 가장 눈부신 풍경이 됐다.

5월 13일 당일, 미국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두 가지 특별 표창을 수여해 리홍쯔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함과 동시에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무어 주지사는 표창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귀하께서 보여주신 고도의 성실함과 능력으로 우리의 큰 신뢰와 존경을 얻으셨기에, 주지사 표창장을 수여하게 돼 매우 기쁘며 본주 시민들에게 해주신 훌륭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셀린 A. 페냐 멜닉 메릴랜드주 하원의장은 축하 서한을 보내 2026년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며 파룬따파가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찬사하다. 데이비드 영만 메릴랜드주 하워드 카운티 의회 제5선거구 의원은 2026년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기리며 표창을 수여하고, 1992년 파룬따파가 대중에게 전파된 지 올해로 34주년이 된 것을 기념했다.

5월 13일, 테드 크루즈(Ted Cruz)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이 미 남부 파룬따파 학회에 서한을 보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텍사스주 휴스턴 남서부에 위치한 슈거랜드시는 첨단 기술 산업, 다문화 커뮤니티, 우수한 생활 환경으로 유명한 현대화된 도시다.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캐럴 K. 매커천 시장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2026년 5월 13일을 시의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 선포했다.

델러스 지역 파룬공수련자들은 플레이노시 프레스턴 메도우스 공원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유리스시 시장 팀 스티네포드와 어빙시 시장 리처드 스토퍼가 각각 축하 서한을 보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5월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제임스 워킨쇼(James Walkinshaw)는 국회 하원 본회의에서 파룬따파의 달과 파룬따파수련자들이 커뮤니티에 기여한 공로를 표창한다고 발표했다. 워킨쇼 의원의 발언은 미국 국회 기록에 등재됐다.

5월 9일, 광역 필라델피아 지역 파룬공수련자는 인디펜던스 국립역사공원 잔디밭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마크 스퀴라 시의원은 필라델피아 시의회가 파룬공수련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낭독하며 그들이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한 공헌에 찬사를 보냈다. “파룬따파 수련자는 그들의 언행으로 많은 현지 주민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행사 기간에 스퀴라 의원은 직접 파룬따파 공법 동작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더 많은 사람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앤서니 H. 윌리엄스(Anthony H. Williams)가 주 상원을 대표하고, 주 하원의원 메리 아이작슨(Mary Isaacson)이 주 하원을 대표해 파룬따파와 파룬공수련자들이 사회에 기여한 긍정적인 공헌을 인정했다.

5월 13일, 오하이오주 파룬공수련자들은 주도 콜럼버스시의 오하이오주 의사당 앞에서 평화로운 집회와 축하 행사를 열고, 창시자 리홍쯔 사부님께서 파룬따파를 세상에 널리 알리신 것을 축하했다. 오하이오주 제3선거구 하원의원 이스마일 모하메드는 오하이오주 제136대 하원을 대표해 표창장을 보내며 “우리는 큰 기쁨을 안고 세계 파룬따파의 날 기념행사에 찬사를 보냅니다”라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제136대 주 의회 상원도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상원의장 로버트 맥콜리와 다수당 원내총무 조지 랭이 공동으로 서명해 오하이오주 파룬따파협회에 경의를 표하며 2026년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표창장은 협회 회원들의 선견지명과 책임감을 특별히 찬양하며 “이 우수한 오하이오주 주민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의지가 확고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우리 주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 피커링턴시, 더블린시에서 잇따라 표창장이나 축하 서한을 발송해 오하이오주 파룬따파협회와 현지 수련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5월 10일(일요일) 오후,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 앨라배마주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각 민족 파룬궁수련자와 가족들이 애틀랜타 북쪽 외곽 덜루스(Duluth)의 쇼티 하웰 공원(Shorty Howell Park)에 모여 세계 파룬따파의 날,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지 34주년을 축하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올해 5개 지방 정부가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해진 것을 축하하며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여기에는 조지아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애틀랜타 시내 주요 지역을 포함하는 풀턴카운티(Fulton County)가 포함됐다.

5월 13일까지 캐나다 각급 정부는 총 54통의 축하 서한과 영상을 보냈다. 캐나다 연방, 주, 시 3급 정부의 여러 정계인사들이 잇달아 축하 서한, 영상, 표창을 보내 파룬따파 수련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가치관이 지역사회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찬사를 보냈다. 온타리오주 에너지 및 광업 내각 장관 스티븐 레체는 축하 서한에서 파룬따파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졌으며 1억 명 이상의 수련자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파룬궁수련자들은 ‘진선인’을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또 파룬궁수련자들이 무료 공법교습반과 선원 등 문화 활동을 통해 중국 5천 년 전통문화와 예술을 캐나다 사회에 소개하며 온타리오주의 다문화 발전에 기여했다고 특별히 언급했다.

5월 16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이 해밀턴시 호반 공원(Hamilton Lake Domain)에 모여 다 함께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해밀턴 시의원 에마 파이크, 레이철 캐럴러스, 아나 케이지-콕스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행사 성공을 기원했다.

5월 9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는 축하 소리가 대만 타이베이 2·28 평화공원에 울려 퍼졌다. 많은 타이베이 시민과 각국 관광객이 공원 야외 음악광장에 들어와 세계 파룬따파의 날 축하 행사에 동참했다.

5월 10일, 호주 파룬궁수련자는 시드니 시청(Town Hall)에서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는 문예 공연 행사를 열었다. 파룬궁수련자는 노래와 춤 공연으로 시민과 함께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짐을 축하하고 다 함께 ‘진선인’을 칭송했다. 빅토리아주 입법회 의원 데이비드 림브릭(David Limbrick)이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했는데 그는 언론에 “‘진선인’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많은 호주인이 이 이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년간 파룬궁수련자가 줄곧 평화롭고 이성적이며 자제하는 모습을 유지한 것은 존경스럽다고 여겼다. 그는 “저는 파룬궁수련자의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것이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 그들을 성원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밝혔다.

5월 9일, 퀸즐랜드 파룬궁수련자가 브리즈번 시내의 킹조지 스퀘어(King George Square)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축하행사를 열었다. 잼보리 워드 시의원 세라 허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곳에 와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게 돼 더없이 영광입니다.” “우리는 파룬궁 단체가 브리즈번 다문화 커뮤니티의 일원이 돼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한국 파룬궁수련자들이 5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당일, 파룬궁수련자와 시민, 외국인 관광객

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고, 중국 공산당의 박해 종단을 촉구했다. 정오 무렵, 당일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대규모 도심 퍼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체 퍼레이드 대열은 약 500m에 달해 장관을 이뤘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성 제2의 도시인 말랑시 및 말랑현의 인도네시아 파룬공수련자들은 현지 관리들이 수여한 축하 증서를 받았다. 말랑현 지방사무처 공공복지처 처장 토톡 무지 아리안토(Totok Muji Arianto)와 인도네시아 말랑현 관광문화국 국장 피르만도 하시홀란 마톤단(Drs. Firmando Hasiholan Matondang)이 전 세계 모든 파룬공수련자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진선인’을 언급할 때 말랑현 위생국 국장은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고상하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라고 밝혔다.

5월 16일, 독일 파룬공수련자들이 금융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 모여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하고 사부님의 생신을 축하했다. 독일 헤센주 의원 3명이 파룬공수련자들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하며,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파룬공수련자들의 축하 행사가 원만히 성공하기를 기원했다. 헤센주 자유민주당 의원이자 자유민주당(FDP) 원내대표인 올리버 스티어벡(Oliver Stirböck)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박탈할 수 없는 인간 존엄의 주춧돌입니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출신, 세계관, 종교 신앙이나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며, 그 효력은 독일이나 유럽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신념 때문에, 혹은 평화롭게 ‘진선인’을 주창한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때 우

리는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민당원들에게 한 가지는 자명합니다. 자유는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월 9일, 오스트리아 파룬따파 수련자들은 유명한 빈 국립 오페라 극장 옆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광장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과 사부님의 생신을 경축했다. 수련자들은 오스트리아 정계 인사들이 세계 파룬따파의 날에 즈음해 발표한 성명을 낭독했다. 크리스티안 샨도르 국회의원은 2026년 세계 파룬따파의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5월 13일,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날, 바로 세계 파룬따파의 날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함께 ‘진선인’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찬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원칙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힘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기쁨을 부여합니다. 이날이 우리 모두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도록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페트라 바이어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러분이 오늘 강조한 가치관인 ‘진선인’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전 인류의 보편적 원칙이며 모든 평화로운 공존의 초석이 돼야 합니다.”

5월 10일,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에서 온 파룬공수련자들이 브라티슬라바에 모여 제27회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했다. 몇몇 슬로바키아 국회의원도 행사장에 와서 지지를 표했다. 국회의원 프란티셰크 미클로슈코는 파룬공수련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경축하는 것에 지지를 표했다. 동시에 그는 이 기쁜 날에 중국 본토의 파룬공수련자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클로슈코는 말했다. “세계는 하나의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중국 본토의 파룬공수련자들)에게 연대를 표하고 그들과

함께 서며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방식으로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과 유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고하지만 단지 자신의 정신적 경지를 향상시키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토록 잔혹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5월 9일, 아일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에서 집회를 열고, 벨기에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 브뤼셀 중심에서 행사를 열어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진 34주년을 축하하며 현지 시민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진선인’의 아름다움을 공유했다.

핀란드 파룬궁 수련자들은 5월 9일, 수도 헬싱키에 모였고, 네덜란드 파룬궁 수련자들은 같은 날 수도 암스테르담의 담 광장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했다.

덴마크와 스웨덴 남부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코펜하겐 도심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경축했다.

5월 10일, 이탈리아 파룬궁수련자들은 볼로냐(Bologna)에 구시가지 중심의 ‘비의 광장(Piazza della Pioggia)’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축하 행사를 개최해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진상을 알렸다.

70세, 생명이 더욱 안정되는 출발점

글/ 마리아(Maria, 스웨덴)

[명혜지창] 저는 올해 70세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노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생명이 더욱 안정되고 내면이 더욱 평온해지는 출발점입니다.

바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내면의 불안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쇼핑을 하며 지냈습니다. ‘현재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과 내면의 평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무렵 거의 매일 밤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술은 비록 위안과 동반자 역할을 해 주었지만, 평온함은 오히려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술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으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후

2023년, 친구가 저에게 파룬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곧 수련을 시작했고, 책을 사서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가운데, 몇 가지 면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챘습니다. 특히 알코올 면에서 두드러졌는데,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졌고 더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것 외에도, 자신의 사고방식이 더는 충동적이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더 차분해지고 더 조리 있게 변해 갔습니다.

우선 저는 생활을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꾸며 집안 물건을 더 줄이고, 색상과 디자인을 더욱 통일하여 생활 공간을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청소하고 정리하는 동안 저는 문득 자신에게 ‘쇼핑 중독’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후를 비교해 보니, 원래는 어떤 물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생활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수련 후에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진정으로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충동’에 이끌려 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물건들이 장기적으로도 유익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줄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다리고 생각할 인내심 없이 그저 물질적 욕망이 저를 마음대로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인생관이 뚜렷하게 변화한 것 외에도, 신체 건강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유연해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으며, 예전처럼 걸핏하면 감기에 걸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정신적·감정적인 면에서, 저는 원래 우울해지고 기가 꺾이기 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분이 나아진 것이 다행스럽고, 전반적으로 훨씬 좋아졌으며, 마음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자신의 경지를 높일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비판을 잘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저 스스로 조정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의 의구심과 걱정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매일의 긍정적 축적

저는 70세 노인으로서 수련 기간도 길지 않고, 아마도 많은 혼란과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진선인(眞·善·忍)’의 지도 아래, 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편집 후기]

마리아(Maria)의 나눔 글을 읽으면서, 그녀의 서술 속에 담긴 소박함이 한 단어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바로 라곰(Lagom)입니다. 이는 스웨덴어로 ‘딱 알맞은’이라는 의미이며, 삶 속의 균형, 적당함, 적절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가파른 봉우리나 거센 파도가 치는 느낌이 아니라, 북유럽의 숲이나 호수 같은 느낌입니다.

북유럽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물욕을 매우 꺾어 봅니다. 그들은 숲속을 거닐며 베리를 따고, 평생 배움을 이어가는 것을 보편적인 일상으로 삼습니다. 번잡함에서 멀어질수록, 생활 공간이 단순해질수록, 오히려 정신세계는 더욱 풍요롭고 넓어집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지린성 메이허커우시 파룬궁수련자 가이융광(蓋永光)은 68세로 2024년 7월 19일 집에 들이닥친 2024년 7월 허난 파출소와 테베이 파출소에 납치돼 구치소에서 박해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고 몇 달 뒤 소식이 끊겼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부당하게 1년 10개월간 갇혀 있던 가이융광은 비밀리에 7년 9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고 그는 이미 지린성 지린 감옥 9감구로 끌려갔다.

헤이룽장성 다칭시 싸얼투구 동평신춘 파룬궁수련자 왕하이위안(王海圓)은 2024년 9월 납치된 후 집에 돌아왔다가 다칭시 싸얼투구 공안, 검찰, 법원으로부터 사법적 모함을 받았다. 2025년 9~10월, 왕하이위안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부당하게 3년 반 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11월 27일 그녀는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

네이멍구 츠핑시 닝청현 파룬궁수련자 류통강(呂銅鋼)은 51세 가량으로 닝청현 다밍진 청허우동촌에 거주한다. 2025년 4월 29일 닝청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 가택수색을 당한 후 계속 닝청현 구치소에 감금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미 2026년 1월 7일 3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고 현재 츠핑시 감옥으로 끌려가 계속 박해받고 있다.

쓰촨성 광안시 72세 파룬궁수련자 황다구이(黃大貴)는 난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2001년에 구치소에서 법을 얻고 감탄했

다. “내가 왜 이제야 이런 대법을 알게 됐을까, 정말 너무 늦게 얻었구나!” 2025년 9월 3일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미행당해 납치된 후 난충시 자링구 감시센터에 감금됐다. 11월 3일, 사건이 조작돼 난충시 순칭구 검찰원에 넘겨졌다. 12월 16일, 순칭구 법원은 그녀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2026년 5월 9일, 그녀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통보받았다. 황다구이의 남편은 이미 82세로 부부는 그녀가 청소부로 번 1천여 위안의 적은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녀가 납치된 후 남편은 매일 눈물로 얼굴을 씻고 있으며 생활은 궁지에 빠졌다.

랴오닝성 진저우시 파룬궁수련자 류완성(劉萬勝)은 진저우 감옥에서 6년간 억울한 징역형을 겪은 후 2026년 4월 22일 집으로 돌아왔으나 8일 만에 71세의 나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8일 동안 류완성은 내내 혼수상태였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몇 번 가족들의 말을 알아듣는 듯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양 발목과 양 손목 위쪽에는 면적 2~5제곱센티미터의 뚜렷한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는데, 특히 오른 손목 위쪽 상처는 선홍색에 진물이 나고 있었다. 2020년 4월 23일 오전 10시경, 류완성은 진저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진상을 알리던 중 진테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하고 6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아내 저우화(周華)는 큰 충격을 받고 병으로 쓰러졌다. 2년 후 저우화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깨달은 동료들 “진정한 파룬궁은 이런 것이었구나!”

글/ 중국 허베이 수련자 왕칭란(王清蘭, 가명)

[명혜망] 명혜망의 한 보도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 “수련계에서 신앙이란 사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의미, 생명의 귀착지에 대해 인식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다. 신앙은 신에 대한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세속의 어떤 신뢰, 이념, 이론, 생활방식, 행복과 건강 법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탄압하던 초기,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고집했다는 이유로 원래 부서에서 강제로 전출됐다. 주변은 온통 낯선 동료들뿐이었고, 그들은 악당 매체가 퍼뜨리는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 내가 자살하거나 사람을 해칠 거라고 오해했다. 그 당시 나는 아직 ‘신앙’이나 ‘수련’ 같은 개념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고, 다만 ‘진선인(眞·善·忍)’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악당의 선전을 뒤엎기에 충분했다.

새 부서로 온 지 3~4개월이 지나자 동료들은 하나같이 탄성을 질렀다. “진정한 파룬궁은 이런 것이었구나!” 동시에 그들은 내게 진심 어린 인정과 도움을 베풀어 줬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흘렀다. 어느 날 친구가 결혼 피로연에 갔다 와서 내게 이런 말을 전해 줬다. 피로연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직장의 왕칭란이야말로 진짜 파룬궁이에요. 파룬궁은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작을 거부하다

나는 그 당시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는데, 간부가 더 높은 실적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직원에게 부가적인 상품을 팔도록 지시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상여금과 성과급을 삭감하겠다고 규정했다.

판매 임무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첫 번째 임무를 겨우 마치면 두 번째 임무가 곧바로 떨어졌다. 본업 자체도 몹시 힘든데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쪼개어 추가 임무까지 해야 하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채우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꼼수를 찾고, 조작하고, 대충 넘기기 시작했다. 돈을 삭감당하지 않으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관행이 돼 버렸다.

나도 늘 이 추가 임무를 채우지 못했다. 그런데 마감이 다가오면, 새로 부임한 부소장이 친한 친구(나와 같은 조의 동료)를 통해 내 임무를 가져다가 처리해 줬다. 동료가 부소장에게 내 말을 전했다고 한다. “나는 차라리 돈을 깎이더라도 조작을 하지 않겠어요, 조작하면 ‘진(眞)’을 못 지키는 것이고 그건 사부님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부소장은 내가 임무를 채울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량을 늘렸다.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아 그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소장은 내가 돈을 깎이는 걸 원치 않았다. 탄압이 가장 심했을 때, 내가 수련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 상여금, 연말 상여금이 모두 삭감되고 하루에 8마오(약 150원)의 생활비만 지급됐으며, 이혼까지 하고 주택담보대출까지 갚아야 해서

생활 수준을 최저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료들도 내가 한 푼을 여러 번 쪼개서 쓴다는 걸 다 알았다. 그들이 가끔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우리 집 쥐도 저 집에 가면 굶어 죽겠다.”

임무를 채우지 못하거나 조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간부는 눈을 감아 주기로 하면서 임무 완수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벌금 대신 일요일 출근으로 대체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제 부소장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 나는 환하게 웃으며 출근을 담당하는 조장에게 달려가 말했다. “이번 일요일 출근은 제 휴가에서 차감해 주세요.”

우리는 반나절 근무제였고 정기 휴일도 없었다. 1년에 연차 며칠과 초과근무 보상으로 받은 일요일이 전부였는데, 다들 일요일 하루하루를 아끼고 아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쓰지 않으려 했다.

조장은 내 말을 듣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없나요?” 나는 말했다. “이 방법이 제일 편해요. 돈도 안 깎이고, 남한테 폐도 안 끼치고, 조작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조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내 출근 표에 휴가로 표시해 줬다.

몇 번의 일요일이 지났는지 잊어버렸는데, 조장이 더는 못 참겠다고 했다. 회사 전체에서 나 혼자만 조작하지 않아 많은 일요일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은 조작으로 다 임무를 채웠는데 결국 지사에서 나만 벌칙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태연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간부도 임무 완수 여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됐다.

이후 나는 경제 사정이 나아져 집을 샀다. 직장 규정에 따르면 나중에 집을 산 사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사람은 난방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집을 살 때 그 규정을 몰랐던 탓에 결국 난방비 청구가 안 됐는데, 1년 난방비가 800여 위안으로 거의 내 1년 생활비와 맞먹었다.

동료들이 말했다. “사장한테 선물이라도 좀 가져가요. 청구 안 되면 해마다 쌓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안 해요. 그건 나쁜 관행이에요. 조장해선 안 되고 오히려 저항해야 해요.”

부소장의 친한 친구인 동료가 말했다. “제가 대신 선물 가져다 줄게요. 저는 사장님이랑 좀 친하거든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부님의 요구에 맞지 않아요.”

“그럼, 제가 가는 것도 안 된다고요?” “당신이 가도 제 일이잖아요. 저를 대표하는 거니까 안 돼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동료들은 모두 나를 존경하게 됐고, 진짜 파룬궁수련생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

아마 소장과 부소장이 위에 보고했던 것 같다. 이후 몇 년 뒤 나는 다른 분사로 전출됐는데, 그곳 소장들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 일 솜씨는 흠 잡을 데가 없다 더군요.”

610 요원이 나를 불러 면담할 때도 첫마디가 이랬다. “이거 참, 당신네 당 위원회 서기부터 소장, 주임까지 당신 칭찬을 한참 하더군요. 당신이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우리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의 인정과 지지

한번은 한 고객이 영업소에서 난동을 부렸다. 자기 돈이 우리 쪽에서 없어졌다고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용의자라고 따졌다. 파장을 줄이려고 간부가 현장에 있던 직원 모두를 사무실로 불러 고객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때 우리 조장이 말했다. “○○○는 안 가도 돼요. 나머지 분들이 가세요. ○○○은 절대 그런 짓 할 리 없어요.” 동료 중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것이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사실을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문제에서 동료들이 나를 이토록 믿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조의 언니뻘 동료가 관리자가 됐다. 어느 날 영업소에서 한 수련생이 그 언니의 부하 직원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 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했다. 부하 직원이 언니에게 알리며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묻자,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자리를 피하면 돼요. 그분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돈 때문에 나쁜 짓도 안 해요. 파룬궁은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명을 씌운 거예요. 앞으로 또 만나더라도 절대 그분들한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요.” 부하 직원은 “알겠어요”라고 답했다.

또 한번은 바로 그 언니에게 기독교를 믿는 친구가 입교를 권했다. 언니가 말했다. “당신들도 신을 믿고 신앙이 있지요. 그런데 당신들 중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손에 쥐여준 사은품을 돌려주고, 돈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묵묵히 사람을 돕고, 거짓말 안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요. 아무도 없죠? 파룬궁 사람들은 그걸 해내거든요! 나는 수련은 안 하지만

파룬궁만큼은 진심으로 존경해요.” 이 말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언니가 우연히 나에게 들려준 것이다.

동료들의 도움

2003년, 제복을 입지 않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세 사람이 아무런 절차나 합법적인 서류도 없이 나를 공안분국으로 데려가 7일 밤낮을 가뒀다. 앞에서 언급한 부소장은 매일 직접 나에게 밥을 가져다줬다. 하루에 두 끼가 될 때도 있었고 세 끼가 될 때도 있었다. 조원 동료들 대부분이 공안분국으로 나를 면회하러 왔다. 아마도 직장 간부가 전력을 다해 교섭을 해 준 것 같았는데, 지금도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그런 곳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물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얼굴들이 드나들었다는 게 놀라웠다.

그 7일 동안 나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거의 밥을 먹지 못했다. 하지만 부소장은 매 끼니 여전히 밥을 가져다줬다. 남은 음식은 동료에게 부탁해 처리하고 매번 새 밥을 가져다줬다. 낮에는 조원 동료들이 교대로 곁에 있어 줬고, 힘 비축해서 경찰과 맞서야 하니 많이 쉬라고 말해 줬다. 밤에는 직장 보안팀 동료(처음 보는 사람)가 지켜봐 주면서 동정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좀 자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아무도 함부로 못 해요.” 공안국 경찰은 한두 번 조서를 작성하러 왔을 뿐이었다. 동료 중에는 내가 쇠의자에 수감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사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경찰에게 나를 쇠의자에서 잠깐이라도 풀어 쉬게 해 달라고 부탁하러 간 사람도 있었는데 성공하진 못했지만 모두들 몹시 안타까워했다. 내가 구치소로 이송될 때도 생활용품은 모두 동료들이 챙겨 줬다.

바로 이 마음 따뜻한 동료들 덕분에 나는 더 참혹한 고문을 면할 수 있었다. 나와 함께 박해받은 수련생들은 공안국에서 수동식 전화기 감전 고문, 호랑이 의자 등 갖가지 고문을 당하고 들것에 실려 구치소로 들어왔다.

구치소에 있던 처음 4개월 동안 공안분국은 가족에게 통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어디 가서 찾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구치소에서 돈도 없고 몸도 많이 상했다. 구치소에서 직장에 전화를 걸어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후임 소장이 직원들에게 모금을 조직했고 많은 동료들이 기부했지만 전달할 수가 없었다. 구치소에서 전화로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지 어디로 가져오라고,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소장은 동료들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 일은 내가 돌아온 뒤에야 알게 됐고, 동료들은 나에게 구치소에서 돈 요구한 일을 알고 있었냐고, 그때 몸이 어떤 상태였냐고 물었다.

기적

구치소에서 내 몸 상태는 꽤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몸이 굳어 버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같은 감방 사람들이 놀라서 필사적으로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불렀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자 사람들이 저마다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내 입에 속효구심환(速效救心丸)을 한 줌 집어넣었고, 누군가는 인종을 눌렀다. 그때 경찰이 와서 잠깐 보더니 “기다려요”라는 말만 하고 가 버렸다. 또 한참이 지나 구치소 감옥의사가 약물이 든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내 엉덩이에 약물을 주사했다.

그때 나는 의식이 또렷했다. 이 구치소에서 수련생 여럿에게 독 주사를 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중 한 수련생을 직접 봤는데,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로도 한동안 눈빛이 멍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부님, 저 약물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딱 한 번 그렇게 생각했다.

의사가 문을 잠그고 나간 뒤, 주사로 들어갔던 약물이 주삿바늘 자리에서 뿜어져 나왔다.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물었다. “뿜어져 나오네, 어떡하지?”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거지, 놀러야 하나?” 한 수련생이 말했다. “건드리지 마요. 그냥 나오게 뒹요. 분명 나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부님이 이렇게 나오게 하실 리 없잖아요.” 그렇게 약물이 다 뿜어져 나올 때까지 그대로 뒹다.

의학 상식으로는 근육주사로 들어간 약물이 원래의 길로 다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같은 감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기적을 목격했다.

이상은 내가 직접 겪은 진실한 경험들이다. 파룬궁을 잘 모르는 동포와 이웃 여러분들이 파룬궁을 제대로 이해하고 옹고 그름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명혜망 2026년 세계 파룬따파의 날 응모작)

거리·버스·공항 터미널, 여든 노인의 활기찬 삶

글/ 중국 장쑤성

[명혜지창] 중국 장쑤성의 한 번화한 대도시, 매일 출퇴근 인파가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봄비는 버스 정류장, 발걸음이 빠른 지하철역, 심지어 항공편 보안 검색대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베이징 억양을 가진 한 노인을 마주치곤 합니다. 그녀는 걸음걸이가 힘차고 목소리가 낭랑하며, 공공장소에서 자주 바닥에 앉아 능숙하게 양반다리를 하며 앉습니다.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미 여든에 가깝다고 말하면, 그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한 파룬궁 수련자의 일상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촘촘한 디지털 감시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많은 수련자는 외딴 지역으로 떠나거나 조용히 지내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 사회와 출퇴근 권역에 머물면서, 직접 체험한 기적과 법률 상식을 통해 주변 낯선 이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건강의 기적, “여든이 다 되도록 30년째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두 눈으로 할머니가 양반다리를 거뜰하게 하시는 걸 보지 않았다면, 정말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벤치 하나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노인을 둘러싸고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놀라움에, 노인은 언제나 당당하게 웃으며 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련의 기적이예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나누어 줍니다. 30년 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기 전, 그녀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 몇 가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심지어 담낭암 진단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 후 이 질병들은 수술도, 화학요법도, 약 한 알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나아버렸습니다. 의료비가 비싼 중국의 환경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이 바라지만 얻지 못하는 일입니다.

한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중년 남성을 만났는데, 그는 손에 약이 가득 담긴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동생, 그 봉지 가득한 약이 다 드시는 거예요?” 그가 답했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이것저것 아픈 데도 많아지고요.” 노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든이 다 됐는데, 30년째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서 건강보험카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오곡 잡곡 먹으면서 어떻게 안 아플 수 있냐고 하는데, 에이! 저는 그냥 정말로 한 번도 안 아팠다니까요!”

남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선이세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정말 재미있네요, 맞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바로 신선을 닮은 사람이예요!” 그는 “아!” 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게 연세가 드셨어요?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그 남성이 승차 전에 관방의 부정적 선전에 대해 묻자, 노인은 조목조목 법률 조문을 분석해 주며 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남성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버스에 오르며 노인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리(李) 대사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용기, 디지털 감시 아래에서 여건을 만들어 내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 동작 인식, 어디에나 있는 감시 카메라가 파룬궁 수련자들의 생활에 큰 안전 위협을 가져다줍니다. 버스에는 위아래 합쳐 보통 6개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거리 곳곳도 감시망이 뻗어 있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버스 위에서 공개적으로 파룬궁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그녀를 말렸지만, 노인의 마음은 매우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더는 감시 카메라를 적대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로 하는 교류 외에도, 노인은 실제 행동으로 수련인의 품행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은 버스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크고 작은 짐과 카트를 들고 하차하려는데,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사와 승객들의 재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던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두말없이 자리에서 뛰어내려, 남성의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빠르게 다시 버스로 뛰어올랐는데, 이 정류장이 그녀가 내릴 곳이 아닌 데다 손가방도 버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버스 안의 승객 모두를 감탄케 했습니다. 차 안의 승객들과 기사도 모두 그녀를 칭찬했고, 그 남성은 아래에서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하긴요, 오늘 복 많이 받으셨네요. 저 여든이 다 됐는데,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더라면 도와드

릴 수 없었을 거예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차 안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든이 다 됐다고요? 말도 안 돼요?” “버스 오르내릴 때 그렇게 빠르시면서, 여든이 다 된 분이라고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네요!” “과륜궁을 하신다고요? 과륜궁은 불법인데, 나라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노인은 이 말을 듣자마자, 승객들이 제기한 여러 의문에 대해 중국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 조항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국가신문출판총서(國家新聞出版總署)가 이미 과륜궁 서적에 대한 금지령을 폐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래 팽팽하던 차 안의 분위기가 따뜻하게 바뀌었고, 하차할 때 적지 않은 승객들이 그녀에게 먼저 손을 흔들며 “갈수록 젊어지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 터미널까지, 넘치는 선의

노인의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번은 기차역에서 한 관광단을 만나 단원들이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을 풀어주었고, 또 한번은 거리에서 동북(東北) 지방 출신 부부에게 먼저 말을 걸어, ‘천안문(天安門) 분신’ 등 역사적 조작 사건에서부터 과륜궁이 해외 백여 개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꼬박 두 시간 동안 설명해 주었고, 상대방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 이해했어요”라고 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심지어 한번은 타지로 가는 비행기 보안 검색대에서, 신분증에 표시된 내용으로 인해 노인의 가방이 “밑바닥까지” 철저히 검사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트집에도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이 오가는 넓은 홀에서 주변의 중국인과 외국인 여행객들을 향해 과륜궁의 합법성을 큰 소리

로 밝혔습니다. 목소리가 웅장한 홀 안에 울려 퍼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보안 검색 요원들은 오히려 어색해하며 정중하게 그녀를 탑승구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에 너무 열중하다 막 구입한 거의 200위안짜리 식용유를 버스 정류장에 두고 온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주변 사람들이 진상을 알 수 있다면 이러한 물질적인 작은 손실은 전혀 대수롭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진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들의 희망입니다.” 노인은 명혜망(明慧網)에 투고한 한 교류 글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멀리서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도시, 매일 걷는 거리에서 당당하게 선의와 진상을 전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살든 모두 여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아내가 딸의 아이를 돌봐주러 가게 돼 저도 남방으로 오게 됐습니다. 1년 남짓 살았지만 적응이 안 돼 북방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고향에는 수련생들이 많아 수련 분위기도 짙고, 북방의 여름은 후텁지근하지 않습니다. 남방의 여름은 장마가 끊이지 않고 날이 개면 바로 사우나 같은 날씨가 됩니다. 북방의 겨울은 난방이 돼 집 안이 훈훈하지만, 남방은 집 안이 으스스하고 추워서 에어컨 결을 떠나면 몸이 시려 솜바지를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혼자 수련하는 환경이다 보니 늘 고독감이 들었고 쉽게 해이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진하는 마음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매일 법공부 외에도 법을 베껴 썼으며, 4번의 정시 정념 발하기를 빠뜨리지 않고 현지 사악을 제거하기 위해 3번을 더 발했습니다. 딸은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입만 열면 외지인인 걸 다 아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라고 제게 주의를 줬습니다. 안 그래도 겁이 많은 저는 딸의 이 말을 듣고 더욱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거나 쇼핑하러 나갈 때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진상을 알렸지만, 마음만 조급할 뿐 속 시원히 말을 꺼내지 못해 1년 동안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한 사람이 고작 9명에 불과했습니다.

한동안 수련생들이 몹시 그리웠습니다. 그리워하는 횟수가 많아 지자 사부님께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몇몇 수련생과 함께 있었는데 수련생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은 이미 수련생에 대한 정을 내려놓았는데 저 혼자만 애태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 어떤 수련생이 “일찍 돌아오세요. 어디든 집만 한 곳이 없어요”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다른 수련생은 “자녀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아시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원래 저는 두 달만 머물다 떠날 계획이었으나 딸이 강력히 만류했고, 아내도 이곳 생활에 푹 빠져 집 생각은 잊은 채 “이곳이 얼마나 좋아요. 여름에는 땀을 흘리니 병이 안 나고, 겨울에도 화단에 꽃이 피잖아요. 우리집에 이런 풍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머물러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할 수 없어 순리에 맡기고 ‘행각’이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모두 수련이니 매 생각마다 자신을 바르게 잡으며 매일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남방에서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것은 바로 특색 있는 간식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식탐이 있는 저는 마치 굶주린 소가 푸른 풀을 만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몇 번 먹고 나자 사부님께서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꿈에서 처제가 향긋한 풋콩(豆角) 요리를 한 솥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식탐을 내려놓고 전부 잘라내야(都剝, 더우자오. ‘풋콩’과 발음이 같음) 함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아내가 사소한 일로 끝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면 저는 자주 ‘마지막 지푸라기’에 짓눌려 무너지곤 했습니다. 심성을 지키지 못할 때 사부님께서서는 꿈을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저와 함께 산을 오르며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여기 속인사회에 와서, 마치 여관에 투숙하듯이 며칠 좀 묵었다가 총총히 간다.” 일부 사람은 바로 이곳에 미련을 두고 자신의 집을 잊어버렸다.”(전법륜)

이제 저는 딸의 집이나 북방의 집이나 모두 여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생을 돌이켜보면 5번이나 이사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셋방에서 자가로 이사할 때마다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싶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속절없이 흐른 세월은 얼굴에 풍상만 남겼고, 만약 대법을 얻지 못했다면 저는 진작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집이 주인이고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남방에서 태어났다면 적응하지 못한 채 북방을 그리워했을까요? 만약 제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적응하지 못한 채 중국을 걱정했을까요? 만약 정법이 끝나고 백일비승(白日飛昇)한다면 제가 뒤를 돌아보며 집안의 재산을 힐끗 쳐다보기라도 할까요? 사람의 관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설법 중에 떨어져 내린 그 나한(羅漢)은 마지막 순간에 처한 수련인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수련생들이 일하러 다니고, 셋방에 살며, 거처 없이 떠돌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 모두 여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을 그리워하고, 옛날을 회상하며, 염려하고, 적응하지 못하며, 마음이 들뜨고, 근심하며, 외로워하는 등 이런 마음들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다 그만큼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닫자 저는 어느새 그 속에서 뛰어넘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중국 수련자들에게, ‘불법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길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이전 명혜망 기사에 여전히 ‘불법 납치’라는 단어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중국 수련자들과 교류해보려 한다.

중국의 법률이든 세계 각국의 법률이든, 납치는 통상적으로 심각한 형사 범죄이자 중죄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불법이다. 타인의 인신 자유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납치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불법 행위로 인정받고 있으며, 각국 법률과 국제법의 엄격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따라서 ‘불법 납치’라는 용어는 틀린 것이다.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불법’을 더하면 어색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부정의 부정이 곧 긍정이 되는 문제가 숨어 있다.

마치 우리가 ‘불법 강도’, ‘불법 절도’, ‘불법 살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강도, 절도, 살인 자체가 불법이며 범죄라는 것을 안다. 다만 사람들이 ‘납치’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강도나 살인처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

박해를 폭로하는 용어에서 만약 ‘불법’을 사용하려면 뒤따르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법 용어나 사법 절차여야 한다(예

외는 있음). 예를 들어 재판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법적 절차이지만, 이런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이용해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재판’을 사용하여 법률이 바른 믿음을 박해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표현한다. 감금, 구류, 선고 등도 모두 같은 이치다.

다시 말해 박해를 폭로하는 기사에서 우리는 ‘불법 감금’, ‘불법 구류’, ‘불법 선고’ 등의 단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불법 납치’는 잘못된 용어이므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설령 앞서 예를 든 ‘불법’ 류의 어휘라 할지라도 기사 안에서 대량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글쓰기 측면에서 문맥이나 각 단락에 중복되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일찍이 한 수련자가 검찰원에 고소장을 쓰면서 모든 단어 앞에 ‘불법’을 덧붙이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마치 그렇게 쓰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쓰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다른 수련자가 권해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만 사악을 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정반대였다. 글쓴이가 기사에서 불법을 너무 강조하고, 주관성이 너무 강하며, 섞여 들어간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무거운 데다 전문적인 법률 어휘의 표현도 아니어서 일부 독자(공안, 검찰, 법원, 사법 부문 독자 포함)에게 거부감과 반감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의 비(非)수련자 집단 독자들 사이에서 결코 적지 않으며, 정의로운 변호사 집단에서는 한때 이에 대해 유난히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가 기사를 쓰는 목적은 박해를 폭로하고 광범위한 독자층에게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당문화(黨

文化)적 사고방식 때문에 기어코 자신의 어떤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려 하며, 상식이나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작용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글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상리에 어긋나며, 글의 용어 규범에 맞지 않고, 독자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수년간 겪은 뼈저린 교훈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명혜망 2026년 4월 12일에 발표된 해외 대법제자의 글 ‘단정적인 단어를 사실 묘사로 바꾸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의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다. 상세한 사실 묘사로 ‘불법’과 같은 작가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단어를 대체하고, 이러한 글쓰기 방식으로 박해를 폭로해야만 독자를 더 납득시킬 수 있고, 더 큰 설득력을 갖추게 되며, 진상을 알리는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실 서구의 현대 뉴스 보도에서는 이것이 일찍이 사회적 상식이자 언론의 관행이 됐다. 수천 년의 중국 전통문화도 ‘사필여연(史筆如椽)’, ‘최저시기군(崔杼弑其君)’, ‘춘추필법(春秋筆法)’, ‘석자여금(惜字如金)’, ‘일자지사(一字之師)’, ‘문장본천성(文章本天成)’ 등 수많은 글쓰기 원칙과 경험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단지 1949년 중공 악당이 정권을 찬탈한 이후, 중국인들에게 체계적인 세뇌를 실시하고 공산당 당문화를 주입한 결과, 오늘날 중국인들의 글쓰기 어휘에는 ‘거짓되고 크고 공허한(假大空)’, ‘악하고 폭력적이고 투쟁적인(惡暴鬪)’, ‘강조하고 강요하는(強調強加)’ 등의 요소가 충만하게 됐다.

대법제자, 특히 중국 대법제자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환경 속에

서 살아왔기에 이 방면의 오염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문화식 글쓰기 방식을 타파하고,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글쓰기와 보도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수련자가 마땅히 중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불법 초가(抄家-가산 몰수)’라는 단어 역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초가’는 현대 법률 어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개념으로, 오늘날에는 민간 속어가 됐다. 이 단어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지닌 대중성을 고려할 때, 일반 민중에게 진상을 알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하면 모두가 단번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전문적인 분야, 예를 들어 공안, 검찰, 법원, 사법 등의 기관과 직원에게 고소장, 고발장, 상황 보고서를 쓰거나 답변서, 항소장, 신소장(申訴狀) 등 현대 법률 전문 용어와 관련된 글을 쓸 때는 ‘불법 주거침입’, ‘불법 수색’, ‘고의 재물손괴’, ‘강도’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행위는 모두 위법 범죄에 해당하며, 각각 ‘불법 주거침입죄’, ‘불법 수색죄’, ‘고의 재물손괴죄’, ‘강도죄’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명혜망에 글과 기사를 쓰는 것은 독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련자가 아닌 민중을 포함해 모두가 읽도록 쓰는 것이지, 단지 수련자 집단에게만 읽히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독자와 수용자의 느낌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일에 부딪히면 먼저 남을 생각하는 수련의 기준이 똑같이 체현된다. 자기 혼자 쓰면서 후련해하고 스스로 잘 썼다고 생각할지라도, 독자가 읽기에 매우 불편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심지어 의문을 품고 거부감을 느낀다면,

진상을 밝히고 박해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혜망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도, 공신력, 권위성마저 떨어뜨리고 상쇄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실로 심각하므로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

진정한 대법제자가 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90년대생 청년 대법제자입니다. 2008년에 법을 얻어 지금까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직 중학교에 다니던 제가 이제는 직장을 갖고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줄곧 정진하지 못하는 이 제자를 보살펴주시며 거듭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침내 정법이 곧 끝나가는 이 시점에 저는 수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한 대법제자가 되었습니다.

1. 진정으로 수련으로 돌아오다

어릴 때 이모할머니(대법제자)께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며 평소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자주 외우면 사부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열어 주셔서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병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이모할머니는 저에게 진상을 알려주시며 대법이 좋고 대법의 신기함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신기함에 폭 빠져 대법이 좋다는 것을 매우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제가 법을 얻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

년 때 법을 얻은 후 저는 진정한 수련이 무엇인지 줄곧 깨닫지 못했고 대법을 수련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좋다는 것, 병의 고통이 없을 수 있다는 것,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것, 총명해져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학습 성적이 좋아진다는 것 등만 알았습니다. 수련의 기점이 바로잡히지 않았으니 당연히 굳건하게 수련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기간 내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수련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저는 파문따파가 좋고 사부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도시로 대학원을 다니러 온 후 정말이지 속인 사회의 다양한 화려함에 미혹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법공부와 수련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고 즐긴 후 남는 것은 깊은 밤 고요할 때의 깊은 방황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밤새도록 불면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속인 중의 명(名), 이(利), 정(情), 원망심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대법을 생각하고 사부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자신이 너무 형편없고 너무 거리가 멀어 대법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위로 수련해 올라가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없고 정념도 없어 감히 ‘전법륜(轉法輪)’을 받쳐 들고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정월대보름 그날까지도 저는 어찌 된 영문인지 출근할 때 마음이 매우 괴로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고 이 일, 남자친구, 명리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살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으며 사는 것도 재미없고 죽으면 또 죄

를 짓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사부님께서 하신 “자살은 죄가 있는 것이다.”(시드니법회 설법)라는 말씀이 여전히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를 어찌면 좋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그렇다면 선원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 재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날 매우 순조롭게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동태망에 접속해 선원을 봤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부님을 따라 층층의 우주를 지나 중원 대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흐느껴 울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의 명백한 일면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만년 동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윤회를 거듭하고 생생세세 속인 속에서 몹시 고생하며 시달린 것이 바로 오늘 다행히 사부님을 뵙고 대법을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기 위함이었음을 떠올린 것 같았습니다! 전통문화가 펼쳐지는 것과 중국 고전무용의 수려함과 유연함, 사회자의 온화함과 바른 기풍을 보았고, 성악가들의 음악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저를 향해 ‘진선인(眞·善·忍)’의 강대한 에너지를 쏘아 보냈습니다. 제가 속인 중에서 보았던 좋지 않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이 남긴 독소와 현대의 변이 관념을 씻어냈습니다. 저의 주의식(主意識)이 마침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수련해야 합니다! 저는 대법제자입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여전히 사부님의 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원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사부님께서서는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세력의 음모와 그 업력들이 제가 수련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제 머릿속에 ‘너는 수련할 수 없어,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주입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의 음모가 뜻대로 되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사부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며 파룬따파가 일체를 만든 것입니다!

2. 명리심, 추구하는 마음을 없애다

법공부를 할 때 매우 큰 교란이 있어 저는 법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부님께서 줄곧 저에게 ‘진정(眞正)’이라는 두 글자를 일깨워 주셨음을 체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의 저는 수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대법의 주변에 머물며 대법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한 층의 가장 낮은 은혜를 받았을 뿐 진정으로 높은 층차를 향해 수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공부를 통해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수련은 바로 고생하러 온 것이지 인간 세상의 이로움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며 좋은 학습 성적을 얻으러 온 것도, 몸이 편안하기 위해서나 번뇌하는 일이 없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련은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빚진 업을 갚지 않겠습니까? 수련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 바로 이러한 좋지 않은 마음과 집착심이 저를 거듭 대법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이익을 중시하지 않고 속인 중의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외우는 중에서 저는 진정으로 자신을 바꿨습니다. 동료가 저를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저는 사부님의 법을 생각하며 다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존중하지 않을 때 저는 제가 명예를 추구하는 이 마음을 없애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은 후 상대방이 즉시 바뀌는 것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번은 지하철에서 분명 제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한 여성이 제 옆에서 “정말 교양이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하마터면 노발대발하며 그녀를 욕할 뻔했지만 즉시 제가 수련인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

로는 여전히 불평하며 ‘나도 당신 일을 방해한 게 없잖아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안으로 찾았을 때 공산당 당문화의 암적 요소가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자유사회에서 저처럼 억지로 지하철에 밀고 타는 행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제가 정말로 그녀를 밟지 않았더라도 수련은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지 인간 세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난 후 즉시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고 기분도 평온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수련을 위해 길을 깔아주는 것이며 모두 제가 닦아버려야 할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법을 외우고 법공부를 하면서 저는 무엇이 수련인지, 진정한 수련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3. ‘저 탈퇴할게요, 당신이 제 영혼을 구했어요’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B 선생님과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같은 사무실에 있어서 잘 지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기 전에는 그녀가 제 말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유난히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자주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진실한 소식을 본다며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을 말했고 선악에는 응보가 있다는 것과 장자석(藏字石)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공산당이 망하든 안 망하든 자신과 상관없고 자신도 그것이 망하는 날을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은 한 생만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의 최면 요법은 사람들에게 전생과 현생의 몇 가지 연관성을 분명히 보게 해준다면서 마음속에서 탈퇴하면 당신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멈추지 않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평소 제 인상 속에 그녀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고 그렇게 잘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탈퇴할게요, 저 마음속으로 탈퇴해요. 왜 이 일이 동북 사람인 당신이 말하니까 이렇게 웃기죠?” 저는 당시 그녀가 하는 말을 선뜻 믿기 어려웠던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확실히 탈퇴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탈퇴할게요. 당신이 제 영혼을 구했어요. 당신은 제가 여전히 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전에는 나 자신만 믿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B 선생님의 반응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진상을 알리고 났을 때의 느낌은 정말 정신이 맑아지고 상쾌하며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모두 실질적인 것으로 당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으며, 정말로 해내면 법리가 나타납니다. 그날부터 B 선생님과 저의 관계는 많이 원만해졌고 이전의 많은 오해도 모두 풀렸습니다. 대법은 일체 바르지 않은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조금의 걱정과 두려움도 없었고 지혜도 솟아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加持)하시고 제자를 격려해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임대한 집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청소하러 오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새로 온 이 언니는 겉보기에 선해 보이지 않고 웃지도 않으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진상을 알릴 때 사람을 고르지 말라고 하셨으며 고르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념으로 그녀의 배후에서 진상을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악과 제 마음속에 있는, 어

려워하는 정서와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등을 제거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후 저는 먼저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지난번 우리집에 왔을 때보다 약간 온화해진 것을 보고 저에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망설여도 말을 꺼낼 실마리를 찾지 못해 저는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돈을 벌어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고 공산당의 나뽀에 대해 말하자 언니는 매우 동의했습니다. 저는 크게 고무돼 또 천안문 분신자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흥분하며 아, 그것은 나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은 모두 가짜이고 모두 장쩌민이 사람을 찾아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공 최대의 사기극으로 인정받았으며 중국 서민들을 속이고 전 세계의 중생을 해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불가의 수련대법이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흥분하며 “아! 알고 보니 그랬군요, 정말 몰랐네요, (공산당이) 어찌면 이렇게 나뽀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매우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중국공산당(중공)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저는 그럼 너무 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에 그녀가 떠날 때 뜻밖에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과 이야기해서 매우 기뻐고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일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매우 유쾌하게 작별했습니다.

대법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기점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법 위에 있으며 일념이 바르기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사부님께서 제자를 격려하시며 진상을 더 많이 알리고 표면을 중시하지 말며,

그런 관념들을 없애야만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시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 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저 선해 보이고 아는 사람 중에서 적당한 기회를 몇 번 찾아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제자를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비록 이전에 정진하지 못하고 10여 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 몹시 후회되지만 제가 진정으로 대법이 무엇이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저는 이미 시간이 늦을까 봐 두렵거나 수련해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대법의 억만분의 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 속에는 이미 사부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생생세세의 보살핌이 스며들어 있었기에 제자는 사람 몸을 얻어 세상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직 사부님과 대법에 대한 경건함과 감사를 품고 보잘것없는 저의 전부를 내려놓고 대법 속에서 용련하며 자신을 잘 수련하고 중생구도하는 일을 잘해야만 사부님과 천국 중생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사부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허스(舍十)

억울한 일을 겪은 후 안으로 찾고 자신을 수련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에 대법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90세 고령에 가까우시며 혼자 살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자

때 5명이 번갈아 가며 어머니 댁에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어느 날 큰언니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였습니다. 큰언니가 어머니 댁 물건을 정리하다가 작은 침실에 술이 조금 쌓여 있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언니는 술 냄새가 싫고 몸에 좋지 않다며 자리를 옮겼고 일부는 창고로 옮겼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하루는 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술이 왜 줄었니?” 어머니는 조금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손자가 산 비싼 술인데 잠시 내게 맡겨둔 거야. 잃어버리면 내가 손자한테 어떻게 설명하겠니?! 너 못 봤니?” 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두셨는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뒀는지 알면 너한테 묻겠니?” 저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건드렸는지 물어볼게요”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건드리겠니? 아무도 안 가져가, 가져간 사람이 알겠지!” 저는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찾아봐요. 조카가 인터넷으로 산 그 술은 여러 번에 걸쳐 도착해서 모두 작은 침실 구석에 쌓아뒀어요. 제가 받은 물건은 다 그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으니 사진을 보고 하나하나 확인해봐요.”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술병 사진을 찾았습니다. 유명한 술의 상표 도안과 내부 상자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을 열어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구석에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바닥에

늘어놓고 보시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과 대조하면서 종이에 술 이름과 수량을 적으셨습니다. 물건을 모두 꺼내고 창고에 둔 술도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확인이 다 끝나자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말투도 그렇게 강경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물건들이 맞죠? 다 맞죠?”라고 여쭙자 어머니는 “응”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모든 물건을 제자리로 옮겨 놓느라 지쳐서 온몸에 땀을 흘렸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불공평함을 느끼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셔 놓고 이제 찾아드렸는데 사과 한마디 없으시다니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성껏 모시고 돌보느라 때로는 2~3개월 동안 우리 집에 한 번도 못 가는데. 장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등 모든 걸 다 하고, 형제자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같이 산책하고 햇볕을 쬐느라 내 시간을 얼마나 허비했는지 원망 한마디 한 적이 없었는데. 물건을 사드릴 때 돈을 얼마나 썼는지 따져본 적도 없건만 물건을 찾지 못하자 나를 의심하시니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프구나.’ 생각할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주 괴로웠지만 수련인이 갈등에 부딪히는 것은 우연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저를 의심하셨을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지 못한 걸까? 이것으로 나의 어떤 점을 수련하게 하려는 걸까?’ 저는 최대한 지난 일을 떠올리며 안으로 찾으려 노력했고 이후 몇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어머니 댁에 점심을 먹으러 오자 어머니는 반갑

게 맞이하며 좋은 술을 꺼내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은 술이 괜찮고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몇 주 뒤 남편이 다시 어머니 댁에 와서 자기가 먼저 그 술병을 찾아 점심에 이어서 마시겠다고 했고 금세 그 술을 다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그 술을 즐겨 마신다고 생각하셨기에 물건이 보이지 않자 아마 저와 남편을 의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번은 날씨가 아주 더웠는데 남편이 일을 마치고 어머니 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옷이 땀에 흠뻑 젖어서 저는 오빠의 옷을 찾아 남편에게 잠시 갈아입히고 다음에 올 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오빠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언짢아하셨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남의 옷을 입으면서 어머니께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고 여겨 이것 또한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어머니 댁 서랍에서 충전기나 볼펜 같은 작은 물건이 남는 것을 보면 무심코 우리집에 가져가서 썼습니다. 우리집과 어머니 댁이 모두 한집이라고 생각했고, 평소 제가 어머니 댁에 물건을 사드릴 때도 돈을 아끼지 않으니 남는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쓰는 것은 별거 아닌 정상적인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차피 이 작은 물건들은 서랍에 있어도 아무도 쓰지 않으니 때로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때로는 그냥 가져가서 썼습니다. 이런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척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쁜 습관을 기르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나서야 이런 행동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련인으로서 마땅히 그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없애야 할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저는 제가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저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두 좋은 일이니 수련인의 방식으로 보면 이것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부님께서 어머니를 이용해 제게 갈등을 만들어 이런 문제를 보게 하시고, 부족한 점을 찾고 자신을 바로잡아 수련인의 기준에 따라 바르게 고치고 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갈등은 수련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제게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면 단호히 가져가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며,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아무리 남는 물건이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사람 됨됨이의 원칙이고 도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잘해야 한다고 제게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언니가 또 제게 심성을 높일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은 이러했습니다. 올해 6월 말 여동생과 제부가 어머니 댁에 와서 우리 3명이 청소하며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물건은 종이 상자에 넣어 창고로 옮겼고, 어떤 것은 침대 밑에 수납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리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큰언니가 제게 전화해서 “TV 수납장 위에 있던 꽃병 2개 어디에 뒀니?”라고 했습니다. 큰언니가 집 안을 한참 찾았는데도 못 찾았다며 꽃병 2개는 둘째 언니 물건이라 가져가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가져갔냐고 물었습니다. 말투가 의논할 여지도 없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아주 태연했고 고비가 왔고 수련의 기회가 왔음을 무척 잘 알았습니다. 심성을 지키고 마음을 움직이거나 화내지 않으며 올바르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정리해서 넣어뒀을 텐데 정확히 어디에 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언니가 급하면 내가 내일 어머니 댁으로 가서 찾아볼게.” 큰언니는 “급하지는 않아, 그냥 네가 가져갔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랑 막내랑 같이 정리했으니까 막내한테도 물어봐.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전화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마음에는 어떤 좋지 않은 생각도 없었고 억울하다거나 원통하다는 생각도 없이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심성이 높아졌음을 느꼈고 이 작은 고비를 잘 이겨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수련하여 높아질 기회를 안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발정념의 강대한 위력을 목격하다

글/ 산등성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년 내내 밖에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하며, 진상 책자를 배포해 중생구도를 하는 대법제자입니다. 20여 년의 사계절 동안 내내 사부님의 보호하에 아찔했지만 무사히 오늘에 이르렀으니,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제가 최근 채소 시장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했던 경험을 적어 수련생들과 함께 향상하고 다 같이 정진하려 합니다.

그날 저는 채소 시장에서 진상 책자를 배포하고 있었는데, 방금 몇 권을 나누어주었을 때 갑자기 우리 지역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박해하는 어떤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발정념을 해 그 배후에

있는 흑수(黑手)와 난귀(爛鬼)를 제거하고 그가 저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하에 저는 지혜롭게 몸을 채소 장수 쪽으로 돌려 그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 내가 여기서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고, 대법제자가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고 진상 책자를 배포하는 일에 지장을 주겠구나. 그가 대법(大法)에 죄를 짓지 못하게 하면서도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내 바른 일에 지장을 주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막 생각하고 있을 때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이 바로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념을 해 그가 빨리 채소 시장을 떠나 경비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머물도록 하고, 그를 그곳에 고정해 대법에 죄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정념 한 번에 저는 그 사람이 즉시 몸을 돌려 경비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념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채소 시장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져갔던 ‘중국공산당(중공) 장기적출’, ‘감출 수 없는 증거’, ‘중국인 4대에 걸쳐 속인 거짓말’ 등 40여 권의 진상 책자를 대면해 모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그들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 일은 제게 사부님께서 하신 “제자가 정념 족하면 사부는 회천력(回天力)이 있노라”(홍음2-사도은)라는 설법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정념이 매우 강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강대한 위력이 있어 악인을 조종하는 사악한 요소를 해

체할 수 있으며, 그 사람도 악을 저지를 수 없게 됩니다.

한번은 제가 발정념을 할 때, 폭발한 파편들이 하늘에서 뻑뻑하게 떨어져 온 하늘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번은 발정념으로 장마두(江魔頭)를 해체할 때, 장마두가 두꺼비였는데 이미 불에 타버려 땅에는 까맣게 탄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번은 한 수련생이 경찰에게 납치돼 우리 법공부 팀에서 발정념을 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 이후, 저는 납치된 그 수련생이 바로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결국 그 수련생은 저녁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잘하라고 요구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발정념을 잘하는 일입니다. 저는 발정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저는 기본적으로 매일 오전에 나가서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유하며 진상 책자를 배포하고, 오후에는 소조에 가서 법공부를 했습니다. 발정념은 언제나 그 속에 관통돼 있었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에 아찔했지만 무사히 각종 고난을 넘겼습니다.

이상은 제가 최근 수련 중에서 얻은 약간의 깨달음입니다. 앞으로의 수련 길에서 저는 계속해서 세 가지 일을 잘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려 사람을 많이 구하며, 원망심, 과시심, 쟁투심, 질투심, 남의 일에 참견하는 마음, 의심, 지적을 회피하는 마음 등 각종 좋지 않은 사람 마음을 닦아 없애, 사심 없이 남을 위하는 생명으로 수련 성취해 자신의 사전 서약을 실현하고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을 닦아내는 것을 중시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1998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입니다. 오늘 저는 자신의 한 가지 교훈과 소소한 체험을 글로 써 수련생과 교류하려 합니다.

1.

어느 날 언니가 종이쪽지 한 장을 가져왔는데, 그 위에는 세 가지 물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 세 가지를 물에 달여 마시면 삼맥을 뚫을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받아 들고 속으로 ‘시간 날 때 물에 달여 마셔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어지럽고 두통을 느꼈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이튿날이 되자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았습니다. ‘어떤 바르지 못한 일념이 좋지 않은 것을 불러들였을까?’ 저는 언니가 제게 쪽지를 준 일이 떠올랐고,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대법을 수련하는 우리는 처음에 바로 백맥이 전부 열리는데, 굳이 그 물을 마셔서 삼맥을 뚫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일념을 내보내자마자 모든 증상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련의 엄숙함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비록 바르지 못한 그 한 생각이었지만, 제 수련에서 법에 대한 이해가 탄탄하지 못하고 착실한 수련이 부족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교훈은 제가 법공부를 하고 법을 얻어 진정으로 대법에 동화돼야만 법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고 일사일념을 법에 둘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2.

또 한 가지 일 역시 생각이 바르지 않아 불러들인 시련인데, 사정은 이러합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이 여행을 간다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혼자 집에 남게 되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아들은 제게 이모 집에 가서 며칠 머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럼 언니 집에 가서 며칠 지내야겠다! 나 혼자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날 밤 바로 시련을 불러들였습니다.

밤 12시 발정냄 시간이 돼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침대에서 막 떨어져 아직 채 앉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느꼈고, 어지럽고 눈앞이 아찔하며 천지가 빙빙 도는 것이 마치 침대마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세력의 박해임을 즉시 의식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부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홍쯔 사부님의 제자이며 사부님을 도와 정법을 하는 대법제자이므로, 다른 안배는 모두 필요 없고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역사적으로 구세력과 맺은 어떤 서약이 있다면 전부 무효임을 성명합니다.” 저는 반복해서 외쳤고, 새벽 3시까지 외치고 나서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보니 연공할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일어나 연공을 했고, 이어서 아침 6시 발정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밥을 조금 지어 먹었습

니다. 이때 제 몸은 이미 무척 피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기에, 오전에 저는 또 밖으로 나가 진상을 알렸고 10명에게 삼퇴(중공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해줬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안으로 찾았습니다. ‘어떤 일념이 법에 있지 않아 또 시련을 불러들였을까?’ 저는 전날 혼자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 언니 집에 가서 며칠 묵으려 했던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바로 바르지 못한 일념이었습니다.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사람 마음이 귀신을 문 앞까지 불러들인 격입니다. 저는 수련의 엄숙성을 깊이 느꼈고, 평소 착실하게 수련하고 심성을 제고해야만 일에 부딪혔을 때 일사일념을 모두 법에 둘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글로 쓴 것은 수련생과 교류하며 함께 제고하려 합니다.

사람의 관념을 바꾼 것에 대한 약간의 체득

글/ 샤오허(小荷)

[명혜망] 주변의 많은 사람이 “등이 서늘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에 매우 공감했다. 나 자신의 증상도 이렇다. 등이 서늘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즉시 기침을 했고, 이때 얼른 옷을 껴입지 않으면 연이어 재채기하고 콧물을 흘렸다. 수련 전에도 이랬고, 수련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한번은 날씨가 추울 때 옆으로 누워 자다가 등에 이불이 제대로 덮이지 않아 기침이 났다. 이불을 잘 당겨 덮어도 여전히 기침이 나서 얼른 똑바로 누웠더니 그제야 서서히 기침이 멎었고 등도 따뜻해졌다.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등이 서늘하면 기침을 하고, 셋째 언니(숙인)도 등이 서늘하면 기침을 한다. 그래서 우리 둘 다 얇은 것, 두꺼운 것, 면, 패딩 등 여러 별의 조끼를 가지고 있다. 시골 이모 수련생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모네 구들방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춥다고 느꼈고 특히 등이 시려서 이모에게 걸칠 옷을 좀 찾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모는 춥지 않다고 심지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벽에 기대고 있었다. 이모는 내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보고도 벽에 기대라고 했지만, 나는 벽이 너무 차가워서 감히 기대지 못했다.’

메이(梅) 언니 수련생의 집에서 그랬다. 난방이 되지 않아 다들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깔고 앉아 있었고, 메이 언니의 손자는 스웨터만 입고 있었으며, 어떤 수련생은 벽에 기대어 있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겹옷을 감히 벗지 못했고 그저 등이 시리다고 느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나는 이것이 바로 관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람의 이치이며 나는 이것을 타파해야 했다.

사부님께서 ‘정진요지-경고하는 말(警言)’ 중에 “당신들이 속인의 그 천백 년 이래 뻗속에 형성된 사람의 이치를 개변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사람의 표면적인 이 한 층의 껍데기를 벗어버릴 수 없으며 원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전에 집에서 법공부를 할 때, 나는 기본적으로 방석 위에서 가부좌하고 앉아 겨울에는 등을 난방기에 기대었는데 매우 따뜻

하고 편안했다. 이를 인식한 후, 나는 되도록 등을 난방기에 기대지 않았다. चु킨 했지만 법공부를 할 때 졸음이 잘 오지 않았다. 때로는 조끼를 하나 더 입고 싶기도 했지만, 이 관념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옷을 한 벌 더 입을지언정 조끼는 입지 않았고, 등에 특혜를 주지 않았으며, 신체의 다른 부위와 똑같이 대하며 특수한 대우를 허용하지 않았다. 서서히 등은 그다지 민감하지 않게 되었다. 겨울이 다 지나고 난 후, 나는 등이 서늘하든 말든 이미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등이 서늘하면 기침한다”라는 관념을 내가 타파한 것이다.

십여 년 전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선명하지 않고, 특히 책을 볼 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였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온통 뿌옇게 보였다. 나는 어르신들이 “48세면 눈이 침침해진다”라고 하던 말이 떠올라 ‘설마 내 눈이 침침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작은 판본인 ‘전법륜(轉法輪)’을 볼 때 더욱 그러했다. 그때는 법리에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었다. 책을 볼 때 일부러 책을 눈에 바짝 대고 보았는데, 사실 책에 있는 글자가 전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꺼웠지만, 단지 감각에 의지하여 읽어 내려갔다(법을 아주 익숙하게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차례 하고 나자 사물을 보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올해 63세인데 눈이 정상인과 같아서 크고 작은 것, 멀고 가까운 것을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내가 느끼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법에서 인식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면 매우 빠르다. 이것은 대법의 위력이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시성이여 산시성이여, 근본을 잊지 마라

글/ 정언(鄭言)

[명혜망] 유행어 중에 “1천 년 역사는 베이징을 보고 3천 년 역사는 산시성(陝西省)을 보며 5천 년 역사는 산시성(山西省)을 보라”라는 말이 있다. 산시(山西)성은 공인된 화하 문명 기원지로 상고 시대 요(堯), 순(舜), 우(禹) 세 성왕이 모두 산시성 경내에 도읍을 정했으며, 현재 이미 린펀(臨汾) 지역에서 요임금 도읍의 존재가 실제로 발견돼 산시성 역사의 무게에 신비로운 색채를 더해줬다.

상고 시대 요, 순, 우의 공적은 역대 군왕들이 칭송하고 본받는 도덕적 모범이 됐다. 한나라 이후 또 산시성은 불교 발전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의 핵심 요충지로 변모해, 오대산(五臺山)은 중국 불교 4대 명산의 으뜸으로 자리 잡았고, 또한 오대산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청묘(靑廟, 한쪽을 통해 전해진 불교)와 황묘(黃廟, 티베트를 통해 전해진 불교)가 서로 빛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량이기도 하다. 자오청(交城)에 위치한 현중사(玄中寺)는 불교 정토종의 조정(祖庭)으로 공인받고 있으며 정토종 발원지이자 일본 정토종의 신앙 연원이기도 하다. 산시성은 또한 당나라 이래 역대 불교 고적을 보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선사(南禪寺)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당나라 목조 건축과 채색 소조상을 보유하고 있다. 유명한 둔황(敦煌) 벽화와 달리 산시성 벽화는 대부분 관방이나 궁정 화가가 참여해 정교하고 엄밀하며 재료의 품질을 중시해 예술적 가치가 높다. 산시성은 9조(九朝)의 고도

로서 역대 관방에서 모두 불교 문화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이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탁발황, 조서 반포를 늦춰 불법을 수호하다

북위(北魏) 시기[도읍을 평성(平城)에 정함, 현 산시성 다통(大同)]에 불교 역사상 참담하고 가슴 철렁한 장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위서·석노지’ 기록에 따르면 기원 446년 북위 태무제(太武帝) 탁발도(拓跋燾)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멸불(滅佛) 조서를 내렸다. 그는 불상과 경권(經卷)을 불태울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승려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태자 탁발황(拓跋晃)은 천성이 인자하고 불법(佛法)을 독실하게 믿었다. 그는 부황의 성지를 어길 수 없음을 깊이 알고 매우 은밀하고 효과적인 ‘지연 전술’을 취했다. 그는 태자로서 국정을 대리하는 직권을 이용해, 고의로 조서를 압류하고 반포 시간을 지연시켰다. 바로 이 귀중한 며칠의 ‘시간차’ 덕분에 관방 조서가 도착하기 전에 소식이 이미 민간에 비밀리에 퍼졌다. 평성의 승려들은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가장 진귀한 경전과 작은 불상을 지니고 산시성 북부의 깊은 산속[즉 오늘날 윈강(雲岡) 석굴이 있는 우저우산(武周山) 일대]으로 숨어들 수 있었다.

탁발황이 ‘조서 반포를 늦춘’ 것은 수천 명의 승려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훗날 불교를 부흥시킬 기술 역량을 보존했다는 점이다. 태무제가 붕어하고 문성제(文成帝, 탁발황의 아들)가 즉위한 후 바로 탁발황이 보호해 낸 승려와 불상, 경문에 의지하며 우저우산에 기세가 웅장한 윈강 석굴을 뚫었다. 윈강 석굴은 중국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불상군 중 하나다.

1500년의 역사는 이미 먼지와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탁발황이 승려를 보호한 선한 마음과 용기는 여전히 원강 석굴의 그 자비롭고 상서로운 불상들 사이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

역사는 맹종하지 않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으며 걸왕(桀王)을 도와 학정을 펴지 않은,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한다. 반면 바른 믿음을 박해하고 쥐꼬리만 한 이익을 위해 신앙인을 잔해한 무리들은 결국 역사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진중 감옥, 맹종하고 지혜 없이 사람을 해치다

산시성은 예로부터 ‘표리산하(表裏山河, 밖으로는 산, 안으로는 강)’라 불렸으며, 예로부터 산시성 사람들은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융합해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왔고, 30개 성 중에서 산시성만이 고대 지상 건축물이 온전히 보존돼 전국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21세기인 오늘날, 화하 문명의 발원지에서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중국공산당(중공)이 빈틈없이 은폐한 신앙 박해가 발생하고 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장쩌민(江澤氏) 및 중공이 일으킨 파룬궁수련자 박해는 부당한 판결, 세뇌, 미행, 가혹행위, 경제적 단절, 육체적 소멸 등 반인륜적 수단으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파룬궁수련자들을 계속해서 유린하고 있다. 산시성 남성 파룬궁수련자는 주로 치(祁)현에 위치한 진중(晉中) 감옥(산시성 제1감옥이라고도 함)에 부당하게 수감돼 있다.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진중 감옥은 파룬궁수련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9명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를 박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다. 뤼바오쥔(羅保俊, 2021년), 왕지구이(王繼

貴, 2016년), 귀샤오원(郭小文, 2013년), 한하이밍(韓海明, 2014년), 루하이싱(陸海星, 2012년), 루야오쉐(盧爻穴, 2010년), 환푸성(樂福生, 2007년), 캉즈궈(康治國, 2005년), 류즈빈(劉志斌, 2004년) 등이다.

최근 몇 년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감옥의 환경을 개선해 현대화 수준이 높은 새 건물을 세웠는데, 이는 산시성 감옥 시스템의 첫 번째 고도 경계 감구로 불리며 건물은 ‘회(回)’자 모양으로 총 4층이다. 그러나 이는 감옥의 ‘인간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표면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배후에서는 더 음흉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2025년 5월부터 진중 감옥은 폭력적인 세뇌를 시작했는데, 갓 부당하게 입소해 집중훈련을 받는 파룬궁수련자부터 한 명씩 고도 경계 감구 4층 감방으로 끌고 가 밤낮으로 벌 세우기, 잠 안 재우기, 구타, 고춧물 뿌리기를 가했으며, 그런 다음 대대로 내려보내 한 명씩 감방으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했다.

허우리죈(侯利軍), 남성, 54세,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시 사람. 한때 강제노동을 당한 후 20여 년간 유랑 생활을 했고, 2023년에 부당하게 10년형을 선고받은 후 진중 감옥으로 납치됐다. 진중 감옥 고도 경계 구역(집현대)에서 허우리죈은 며칠 연속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장시간 작은 목욕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으며, 그는 박해받아 때로는 소변을 보지 못했고 허리와 등이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팠다. 이후 감구로 내려가 허우리죈은 단식하며 박해를 반대했고,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가혹행위를 당해 지난해 단식이 200여 일에 달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자

들은 모두 가족 면회가 정지됐고, 전화카드를 발급해주지 않으며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서신 왕래조차 중단됐다. 화이트리스트(白名單, 수감자의 계좌로 송금이 허용된 가족·지인 명단) 등록을 해주지 않아 가족이 계좌로 송금할 수 없었고 감옥 내 소비가 제한됐다. 이는 복역자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짓밟는 것이고 노골적으로 ‘감옥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와 전화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감옥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주재 검사도 감옥과 한통속이 돼 파룬궁수련자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거나 감옥이 책임을 모면하도록 도왔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하는 금옥양언(金玉良言)

파룬궁은 파룬따파라고도 하며,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불가(佛家) 대법으로, ‘진선인(眞·善·忍)’을 준칙으로 삼으며 현재 이미 백여 개 국가에 전해져 전 세계의 환영과 호평을 받고 있다. 오직 중공만이 정보 봉쇄를 이용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좋은 사람을 박해해 가없는 죄업을 짓고 있다. 맹종하지 말고 지혜롭게 진상을 똑똑히 보라. 중공은 왜 공검법(公檢法,公安·검찰·법원) 직원이 출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가? 출국 후 파룬궁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진상을 보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책임 추궁을 볼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산시성 사람들이여, 깨어나라. 더 이상 중공의 지시를 따라 악행을 하지 마라. 표면적으로는 파룬궁수련자 박해 수위를 높여 약간의 보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체포되고 선고받고 파면된 이들이 바로 정법(政法) 시스템의 사람들이 아닌가? 위로는 저우융강(周永康)부터 아래로는 조사받은 2만여 명의 공검법 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조사해

보면 절대다수가 직간접적으로 파룬궁 박해와 관련이 있다.

이른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빠뜨리지 않는다)이며, 선에는 선한 보답이 따르고 악에는 응보가 따른다고 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 저울질해 보라.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발밑의 이 황토에 뿔뿔한가? 훗날 언젠가 가슴을 치며 천지양심에 뿔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산시성 사람들이여, 깨어나라!

시대를 관통하는 사법 남용의 궤적: 천년을 이어온 위험한 굴레

글/ 기혜(起慧)

[명혜망] 중국 역사에서 사법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사건을 조작한 자들은 대개 말로가 좋지 못했다. 고대 관리부터 현대 정치 운동의 법 집행자에 이르기까지 이런 현상은 여러 시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이 보도는 역사와 현대의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중국 정치 문화에서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 왜 정치적 풍향이 바뀔 때 흔히 희생양이 되는지 살펴본다.

진나라부터 명나라까지: 관리와 권력의 위험한 인과관계

중국 사서에는 부당한 사건을 조작했다가 패가망신한 여러 관리가 기록돼 있다.

- 진(秦)나라 환관 조고(趙高)는 사법을 조종하고 충신을 모함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결국 정적의 반격을 받아 삼족이 주살됐다.

- 당(唐)나라 관리 내준신(來俊臣)은 혹독한 형벌을 고안하고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유명하며 측천무후의 신임을 받았으나, 정치 국면이 변한 후 처형됐다.

- 명(明)나라 환관 위충현(魏忠賢)은 죄명을 엮어 반대파를 탄압했지만 승정제(崇禎帝)가 즉위한 후 청산당했고, 그의 시신은

부관참시돼 대중에 공개됐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사례들이 고도로 집권화된 정치 체제에서 부당한 사건을 조작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이 권력 교체기에 가장 쉽게 버림받는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현대 중국: 정치 운동 속 부당한 사건 조작자

1949년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 정치 운동을 겪었고 그중 사법 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베이징시 공안국장 류촨신(劉傳新)은 대량의 정치 사건 조작에 가담했다. 문혁이 끝난 후 그는 격리 심사를 받으며 정신이 붕괴돼 공개 재판 전에 자살했다.

중국 정치 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사례가 정치적 고압 시기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사람들이 흔히 정책이 역전된 후 문책 대상이 돼 개인과 가정 모두 무거운 정신적 짐을 지게 되는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1999년 이후: 파룬궁과 관련된 부당한 사건 고발

1999년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한 이후 일부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직원들은 수련자들에게 죄명을 엮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며 불법 판결에 가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명혜망 관련 보고서에 언급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탕이쥘(唐一軍, 전 중국공산당(중공) 사법부장, 랴오닝성 성장은)은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공직과 당적을 박탈당했고 중공 최고인민검찰원에 체포돼 2025년 2월 샤먼시에서 기소됐다.

- 푸정화(傅政華, 전 사법부장, 중앙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주임)는 재임 기간 대량의 파룬궁에 관한 부당한 사건을 조작했다. 2021년 10월 2일 중앙기율위원회의 심사 조사를 받았고, 2022년 3월 ‘쌍개(雙開, 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받았다. 7월 28일 뇌물수수 및 사욕을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린성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9월 22일 창춘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죄로 그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우아이잉(吳愛英, 전 중공 사법부장, 공검법 담당 산둥성 당위원회 부서기)은 재임 기간 대량의 파룬궁 관련 부당 사건을 조작했다. 2017년 10월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3계급 강등 및 당적에서 제명됐으며 관영 매체로부터 ‘법을 모르는 관리’로 불렸다.

- 리동성(李東生, 전 중공 공안부 부부장, 중앙 610 주임)은 CCTV 부대장 재임 시절 중공이 파룬궁을 모독하고 모함한 중대 사건인 ‘천안문 분신자살’ 가짜 뉴스를 연출해 전국적인 파룬궁 박해를 가중시켰다. 2016년 초 그는 뇌물수수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그 밖에도 각급 지방의 많은 집행 관리가 잇따라 다양한 형태의 몰락을 맞이했는데, 어떤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고 어떤 이는 자살했으며 어떤 이는 각종 명목으로 낙마했다.

우리는 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례들은 국제사회의 파룬궁 커뮤니티와 인권 보고서에서 ‘박해자의 응보’를 보여주는 예시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문화적 시각: 선악에 응보가 있다는 이념의 전통

중국 전통 문화의 많은 고서에서는 행위의 결과를 강조한다.

도교의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수명이 깎인다’는 관념이 묘사돼 있다. 이는 천신(天神)이 사람의 소행을 기록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수명이 단축되고 빈곤한 삶을 살게 되며 형벌과 재앙도 뒤따르게 돼 결국 일찍 죽게 된다는 의미다.

불교의 《법구경(法句經)》은 “허공이든 바다가든, 산속 동굴이든, 악업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세상에 진정 피할 곳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악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고한 사람을 박해하면 결국 그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문화적 이념이 중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의 중국에서도 여전히 상당히 보편적인 사회적 이해라고 본다.

정치적 시각: 왜 부당한 사건 조작자가 자주 정치적 위험을 짊어지게 되는가?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중국 정치 체제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1. 희생양: 고도로 집권화된 상태에서 책임의 집중화로 인해 정책이 전환될 때 집행자는 흔히 희생양이 된다.

2. 인치(人治): 독립적인 사법 메커니즘이 부족한 정치 사건에서 법 집행자의 행동은 대개 법적 절차가 아닌 상부의 지시에 의존한다.

3. 정치적 충성의 취약성: 권력 투쟁 속에서 한때의 ‘충성파’도 순식간에 버림받을 수 있다.

4. 역사: 사회 문화 속 도덕적 서사, 역사와 종교 이야기에는 ‘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과거의 사례가 관통하고 있다.

맺음말: 역사와 현대의 공통적인 일깨움

고대의 관리든 현대 정치 운동의 법 집행자든 역사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준다. 즉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체제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대개 최종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날 여전히 사법 및 법 집행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인 일깨움을 준다. 정치적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권력 남용의 결과는 대개 언젠가 개인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배경 정보]

610의 정식 명칭은 ‘중공 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 사무실’로 장관급[正部級] 중공 중앙 직속 기구다. 중앙 610 영도소조 조장은 주로 중공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가 맡고 주임은 주로 공안부 부부장이 맡아 전담으로 파룬궁 박해를 추진하고 유지해 왔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보고서는 610이 중공 중앙의 명령을 받는 국가안보 ‘초법적 기구’로서 각 기관을 조율해 파룬궁 탄압을 주도한다고 인정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610에 대해 “오로지 파룬궁을 소멸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법률 관할 밖에서 활동하는 보안 기구”라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주룽지(朱鎔基), 원자바오(溫家寶), 리커창(李克強) 등 세 명의 국무원 총리와 황쥐(黃菊), 한정(韓正), 왕양(汪洋) 등 전 국무원 부총리는 모두 중앙 610의 정·부 전담 책임자 임명장에 서명한 적이 없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중앙 610은 시진핑(習近平) 당국에 의해 통폐합돼 그 기능이 중공 중앙 정법위원회와 중국 공안부로 편입됐다.



▲ 5월 13일, 미국 미주리주 일부 파룬궁수련자는 주도 제퍼슨시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미주리주 주지사가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여러분의 굽히지 않는 정신, 헌신, 우리 지역사회에 한 공헌에 찬사를 보냅니다.” 주 상·하원은 각각 결의안을 통과시켜 축하했으며 5명 의원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 조지 하루자 하원의원은 공산 국가 출신으로 무신론과 공산주의 폭정의 잔혹함을 겪었다. 그는 파룬따파가 중국에서 박해받는 진상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밝히며 파룬궁수련자가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다양한 노력으로 진상을 알리며 대법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0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175만 3067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